

채권단·금호, 아시아나 재실사 대응책 부심

노딜 명분 쌓기 관측에 현산 재실사 수용하지 않을수도 올 1분기 부채비율 6280%·13조241억...전분기 4.5배↑ 인수 무산 시 영구채 8000억 출자 전환·분리 매각 거론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6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채권단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노딜(인수 무산) 명분 쌓기'로 보고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27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채권단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현산이 전날 보도자료에서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 정확하지 않고 명백한 허약 위반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딜클로징(종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이날 대책 회의를 하고 현산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현재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황 역시 한층 열악해진 만큼 현산이 재실사를 통해 인수 가치를 재조정할 경우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올해 1분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6280%로, 전분기(1387%)의 4.5배에 달한다. 부채는 전 분기 12조5951억원에서 13조241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자본 잠식도 심각한 상태다.

무엇보다 재협상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내놓으라는 채권단의 요구에 현산이 응하지 않다가 재실사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내심 불편한 기색도 채권단 내부에 흐르고 있다.

해의 국가들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등 거

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기에 현산 측의 재실사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류도 감지된다.

현산의 요구대로 다음달 중순부터 12주 동안 재실사에 돌입하면 구주 매각 대금으로 그룹 재건에 나서야 하는 금호산업이나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모두 '희망고문' 속에서 연달까지 버텨야 한다.

재실사 이후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다면 다행이지만, 인수 대금을 깎거나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재실사 후 끝내 발을 뺄 여지가 크다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산의 재실사 요구도 결국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계약 무산시 예상되는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대비한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현산이 그동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아시아나항공 분사에 상주시켰던 점을 고려하면 재실사 요구는 사실상 발을 깨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국 물거품이 될 수 있

다는 점이 채권단의 고민 지점이기도 하다.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현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일단 협상 주체들과 대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계약 파기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시야에 넣고 있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와 관련해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협약이 진전이 안 됐는데 '플랜B'는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인수를 포기하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 아래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 8천억원을 출자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동안 채권단 관리 체제가 유지되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통매각 대상이었던 자회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의 분리 매각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17.86 (+17.42) ↑ 금리(국고채 3년) 0.803 (+0.004)
 ↑ 코스닥 801.23 (+6.43) ↓ 환율(USD) 1196.10 (-5.40)

전남도 중국 언택트 시장개척단 상담회 진행

식품 등 26개사 참여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시장 개척길이 막힌 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개최한 '전남도 중국 언택트 시장개척단 상담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식품, 뷰티제품, 비료, 강관 등 전남도 수출기업 26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베이징 등 중국 3개 도시 유력 바이어 26개사와 79회에

결친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전남도와 무역협회는 상담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구체적인 가격 및 수량 협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관재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기존 해외 현지를 직접 방문하던 시장개척단을 화상 수출상담 형식의 온라인으로 개최한 첫 시도였다"며 "향후에도 우리 지역 기업의 수출마케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소부장 스타트업 100' 후보 60곳 선정

중기부 올해 2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후보 기업 6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20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10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후보 기업 60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및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오는 10월 최종 2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코로나 실직자' 채용 기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1명당 최대 100만원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등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등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

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에어서울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국내 노선 확대

에어서울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국내 노선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오는 8월21일부터 김포-부산(김해) 노선 운항을 시작하고, 하루 4편씩 매일 운항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에어서울은 지난 4월부터 김포-제주 노선을 꾸준히 증편했다. 현재는 하루 8편 운항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에어서울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김포-부산 운항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제주 노선의 추가 증편을 비롯해 김포발 국내 노선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취항을 기념해 초특가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국내선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렌탈 서비스 온라인 구매 급증 20~30대 거래액 743% 상승

식기세척기·음식물처리기 인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목돈을 들이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7일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렌탈 서비스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1% 증가했다.

특히 20~30대의 거래액 증가율이 743%를 기록하며 전체 거래액 증가를 견인했다.

구매를 통한 소유보다 경험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두는 20~30대의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베이코리아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렌탈 서비스의 주 소비층인 40~50대의 거래액도 415% 증가했다.

연령별 거래 비율로는 40대가 37%, 30대가 32%를 차지해 서비스 이용객 10명 중 7명은 30~4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사 노동과 관련된 가전제품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다.



물놀이·일상생활 활용도 '굿' 롯데백화점 광주점 6층 수영복매장에서 고객이 '하이브리드 아쿠아슈즈'를 살펴보고 있다. 하이브리드 아쿠아슈즈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아 물놀이를 할 때 착용하기 좋고, 쿠션으로 발을 보호해 피로감을 줄여주고 가벼워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식기 세척기 거래액은 지난해 대비 1천 18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음식물처리기(233%)와 공기정정기(132%), 의류 건조기(78%), 전자레인지(43%) 등도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렌탈 제품인 정수기 거래액도 320% 늘었고, 온라인 구매가 일반적이었던 장기렌트카도 580% 증가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